

2019년 가을 학기  
전시간 훈련을 위한  
메시지 개요

-----  
전체 주제:

그리스도인의 생활

메시지 8

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며  
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알

성경: 롬 1:3-4, 8:3, 29, 행 13:33, 요 16:19-22, 엡 2:15

- I.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"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"되셨다 — 롬 1:4.
- A. 육체되심과 부활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, 곧 독생자이셨다 — 요 1:18, 3:16.
- B. 그리스도는 육체되심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했다. 그 이유는 육체되심을 통해 그분은 신성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— 요 1:1, 14, 롬 8:3.
1. 육체되신 후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육체 안에 감추어졌다.
  2.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분의 예수님의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— 눅 1:31-32, 35.
  3.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람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셨으며, 부활하시어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.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— 롬 1:3-4, 행 13:33, 히 1:5.
  4.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'능력으로', 곧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능력의 실재는 그 영이다 — 롬 1:4, 빌 3:10, 엡 1:19-20.
- C. 육체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인정되심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— 롬 1:4.
1. 그분은 육체되시기 전에는 오직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.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— 롬 1:4.
  2.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. 그 이유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— 요 1:18, 17:5.
  3. 육체되심을 통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— 요 1:14, 롬 8:3, 1:3-4, 히 2:14.
    - a.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는 두 본성,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. 지금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은 타고난 인성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높여진 인성이다 — 롬 1:4.
    - b.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이다.
- D.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'거룩한 영에 따른 것'이었다 — 롬 1:4.
1. 거룩한 영은 주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 본질이다. 그분은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사실 때 그분 속에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 — 마 1:18, 20, 눅 1:35.

2. 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 속에 있는 거룩한 영에 따라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— 롬 1:4.
3. 이제 그분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. 그 이유는 이제 그분이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여지고 영광을 받고 인정된 사람의 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— 롬 6:4, 눅 24:26, 요 17:5, 행 3:13.

## II.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심이다 — 행 13:33, 롬 8:29, 히 1:5.

- A. 부활은 사람 예수님에게 하나의 출생이었다 — 행 13:33.
  1.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태어나시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— 롬 8:29.
  2.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. 그분의 육체되심 후에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께 태어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— 요 1:18, 3:16, 히 1:6.
- B. 바울은 시편 2 편 7 절 "너는 내 아들이다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."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.
  1. 바울은 '오늘' 이라는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다.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신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— 히 1:5.
  2.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도록 낳으신 것이었다 — 행 13:33.
- C. 육체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-사람이 되셨다(요 1:14, 18, 눅 1:35), 그 후에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-사람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(행 13:33, 히 1:6, 롬 8:29).
  1. 육체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사람의 본성을 갖지 않으셨다. 그분은 오직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.
  2.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도 가지고 계신다.
- D.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같은 시간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 — 벰전 1:3, 히 2:10.
  1. 이러한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오직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— 요 1:18, 요일 4:9.
  2.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분은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— 롬 8:29.
  3.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나 우리도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— 벰후 1:4.
- E. 요한복음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(요 1:18, 3:16) 사도행전 13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만 독생자로 전파하지 않는다. 오히려 사도행전 13 장에서 바울은 확산을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.
- F.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나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포함하는 단체적인 아이, 곧 단체적인 새 사람을 산출하셨다 — 요 16:19-22.
  1.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분의 모든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다. 이 부활은 단체적인 아이, 단체적인 사람의 출생이었다 — 요 16:21.
  2.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태어난 단체적인 사람은 새 사람,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— 엡 2:15.